

#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 형성에 관한 실행연구\*

김효숙(金孝淑)\*\*

이경화(李慶和)\*\*\*

## 논문 요약

이 연구는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변혁하기 위한 주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밝히는데 목적을 둔 실행연구이다. 먼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Freire의 비판적 문식성 교육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문제 제기, 대화와 토론, 실천, 성찰의 단계적 순환과정을 개발하여, 법무부 산하 글로벌 센터의 결혼이주여성 중 한국어 중급이상의 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문제 제기 단계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침묵문화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며, 경청해주지 않는 주변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였다. 대화와 토론의 단계에서는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으로 연계시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면서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관점, 공감능력을 나타냈다. 실천단계에서는 작은 실천과 공유를 통해 불평등한 관계와 소외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율권을 위해 노력하였다. 성찰단계에서는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편견, 차별에 대한 저항 방법을 공유하고, 저널 쓰기를 통한 비판적 성찰의 과정이 활발하였으며 의존적인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려 노력하면서 미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앞으로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이 실시될 경우에는 이들이 당당한 삶의 주체로서 주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비판적 문식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비판적 문식성, 주체성, 결혼이주여성, 실행연구, 프레이리, 비판적 성찰

\*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 주저자, reading36@naver.com, 송실대학교 초빙교수.

\*\*\* 교신저자, khlee@ssu.ac.kr, 송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 I. 서론

세계화에 따른 국제이주의 증가로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장·단기 체류 외국인인 2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외국 태생 인구 비율이 5%를 상회하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인구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의 빠른 전환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는 다문화 결혼가정의 형성인데, 결혼이주자 152,489명 중 여성이주자가 84.3%를 차지하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

신승혜(2015)는 결혼이주여성이 가족을 형성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외국인 중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진희(2016)는 외국에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노동'을 위해 고국을 떠나 한국 사회에 이주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가진 다양한 정체성, 관습, 가치, 행위, 삶의 양식이 우리 사회에 새롭게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은 가족 간의 언어소통 및 문화적 갈등문제, 자녀 교육문제, 그리고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도 결여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다문화가족의 해체는 자녀양육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생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은 언어문제 34.0%, 외로움 33.6%, 경제적 어려움 33.3%,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23.2% 등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6).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의사소통능력임이 강조되면서, 한국어교육 방향에 주요 쟁점으로 부각 되고 있다(양태식, 2010; 이훈병, 2016; 차윤정, 2015).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새로운 이주민들을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 받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진정한 이해와 인정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안정을 위한 대상으로만 간주되어 한국어교육이 기능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이성림, 차희정, 2016; 이성희, 2016; 정명숙, 2010; 차윤정, 2015). 기능적 문식성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을 사회 체제의 순응과 국가 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보고, 문식성 교육의 도구적, 실용적,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데 있다.

Freire와 Macedo(1987)는 인간은 그 누구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으며, 도구적, 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세상을 읽을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인 주체성 형성을 위한 비판적 문식성(critical literacy) 교육을 강조하였다. Bennett(2007)는 이주민이 불평등하게 처우 받지 않고, 문화 간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다문화 역량을 키우고, 사회의 모든 차별이나 불평등에 저항하는 것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주민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한글과 문화를 이해시키는 기능적 문식성 교육에서 더 나아가 학습자들이 직면하는 갈등 상황을 잘 극복하여

안정적인 삶과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비판적 문식성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비판적 문식성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성인 비문해자를 위한 한국 문해교육의 기능성을 비판하고 대안 답론으로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강조한 연구(신미식, 2010; 이지혜, 위영은, 2013; Connolly, 2016)와 결혼이민자를 위한 기능적 문식성 교육을 넘어 문화적,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제안한 연구(윤여탁, 2015)와 Freire의 교육이론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김보영, 2011)가 있다. 비판이론에 철학적 뿌리를 두고 있는 Freire의 비판적 문식성 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이 '다름'을 존중받고 자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언어를 회복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하며 살기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Giroux(1983)는 지배 문화에 의해 일상 생활 속에서 무시되었던 자신의 역사적이고 존재적 경험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주체적인 삶을 지원해 주어야 하고(신승혜, 2015),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이화선, 2015) 비판적 문식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이 기능적 문식성교육에서 배운 문자를 생존하는데 쓰는 도구적 개념을 넘어,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통해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주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즉,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통해 현실의 불평등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이 직접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인과 사회 변화에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체성 형성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위하여, Freire의 비판적 문식성 교육과정을 근거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성찰과 적용의 실행적인 개입과 정도를 조정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실험연구 방법을 통하여 과정 지향적 탐구를 지향하였다. Freire의 비판적 문식성 교육에 근거한 본 연구의 교육과정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주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어, 주체적·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주체성 형성과 비판적 문식성 교육

#### 1) 주체성 개념과 구성 조건

Marcuse(1967)는 인간에게는 사회에 적응하는 측면과 사회를 초월하는 측면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인간이 늘 일정한 조건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지만 때론 그 조건들을 뛰어 넘으면서 나름의 독특한 삶을 창조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조건들을 인식하고 넘어서는 실천을 ‘주체성’이라고 표현하였다(이규호, 2005 재인용). 김상욱(1996)은 문학교육과정에서 목표로서의 이념을 ‘주체적 인간’으로 제시하면서 주체의 의미를 자신의 사회 내적 존재로서의 위치를 자각하는 인간이며, 무의식으로 일상에 침윤된 개인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인식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주체성이란 인간이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일상에 매몰되지 않으며 스스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함으로써 능동적인 실천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를 변동시키는 힘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주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구성 조건이 학자마다 표현은 다르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와 맥락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주체성 구성 조건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비판적 성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체성 형성을 위한 구성조건에 대해 학자들의 연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주체성의 구성 조건

학자	주체성 형성을 위한 구성 조건		
공통	비판적 성찰		
이규호 (2005)	역할과 거리 두기	감정이입, 공감 / 다양한 관점 관용	자아표현
Brookfield (2012)	가정 찾아내기	가정 점검하기 / 다른 관점에서 보기	잘 알고 행동하기
Foucault (2001)	의식 점검	경청	독서 /글쓰기 자기통제
Freire (1970,1993)	문제 제기	대화와 토론	praxis
Merriam, Bierema (2013)	비판적 성찰	대화와 담론/ 비합리적 형태, 예술적 수단	공간 조성
Mezirow (1978)	-혼돈의 딜레마 -기존 신념에 의문 품기 -이전 가정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불만족과 전환의 과정 공유 인식	-새로운 역할, 관계, 행위의 선택에 대한 탐구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계획 -계획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 -새로운 역할과 관계에 있어 경쟁력과 자신감을 쌓기	-새로운 역할을 시도 -새로운 관점을 스스로의 삶에 재통합

이와 같이 주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개인이 항시 소유하고 있는 불변의 실체나 성격이 아니고, 인간이 서로 주고받는 반응과 작용의 사회적 행동으로부터 역동적으로 생성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체성의 구성은 사회 속에서 변화하는 상황과 변화하는 기대들에 수동적으로 적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인식을 해체하기도 하고 재구성하기도 하면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사회적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2) 기능적 문식성 및 비판적 문식성 교육과 주체성 간의 관계

영어 ‘literacy’는 우리말로 ‘문해력(文解力)’ 또는 ‘문해(文解), ‘문식성(文識性)’으로 가장 많이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해력(文解力)’과 ‘문식성(文識性)’의 의미를 구분 짓지 않고 같은 의미의 용어로 규정지으면서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문식성(文識性)’으로 사용하고 자 한다.

기능적 문식성이란 단순한 메시지를 읽고 쓰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소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Venezky, 1990)이며, 개인적·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읽고, 쓰는 능력(이재기, 2009)이다. 따라서 기능적 문식성은 사회생활 영위를 위해 꼭 필요한 읽고, 말하고, 듣고, 쓰는 기본 능력으로, 사회나 문화, 세계의 가치와는 무관하고, 가치중립적인 언어, 텍스트, 담화에 대한 해독과 이해의 기능을 요구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기 위한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신미식(2010)은 기능적 문식성 교육을 통해 비문해자들이 글을 읽고 쓰게 됨으로써 무리 없이 현 사회 경제적 구조에 통합되고,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수용,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봄으로써 실용적, 도구적, 그리고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기존 권력 구조를 유지하고 존속하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Kozol(1985)에 따르면 문맹자들은 기능적 문식성 교육을 통해 글을 읽고 쓰더라도 기존 체제와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대상과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며, 사회구조 저변에서의 위치는 변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언어, 텍스트, 담화를 사회문화적 상황이나 정치·역사적 맥락과 무관하게 보며, 사람들은 단지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신미식, 2010 재인용). 이와 같이 기능적 문식성은 사람들이 자신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기존 권력 구조를 존속하기 위한 도구성과 기능성을 지향하도록 한다.

반면 비판적 문식성은 사고,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의 모든 형식 안에서의 언어 사용 능력이며, 단지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과 지배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텍스트를 평가하는 능력(Harris & Hodges, 2005)이다. Freire와 Macedo(1987)는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외에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읽어 낼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비판적 문

식성은 개인이 글을 읽고 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넘어서 권력과 지배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와의 연관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자신과 사회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Freire와 Macedo(1987)는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통해 기존의 당연하게 여겼던 사회, 문화적 전제와 가정들에 대한 거리 두기를 통하여 검증하고, 권력의 통제를 분석하는 주체성 형성을 통해 자신과 사회를 변환시키고 민주주적인 사회를 만든다고 하였다. Freire의 비판적 문식성 교육에서는 삶의 과정이 문식성 과정이자 문식성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Freire와 Macedo(1987)는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해독과 이해 중심의 인지적 개념에만 매몰되기보다는, 그것을 넘어 내재해 있는 사회·문화·정치적 특성과의 관계를 읽고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기로 강조한다. 즉, 자신들을 문맹자로 만들었던 세상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언어 사용에 내재한 권력관계를 점검하여 텍스트를 통해 발생하는 힘과 불평등의 관계를 성찰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프락시스(praxis)를 추구하는 것이다. Freire의 비판적 문식성 교육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학습자가 그들의 삶에서 물질적,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다(Elias & Merriam, 1997). 그는 문맹은 글자를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읽고 쓰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우리가 글을 안다고 하더라도 세상 읽기와 쓰기를 하지 못한다면 문맹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기능적문식성 교육과 비판적문식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이 이 세상의 주체적 행위자로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어 갈 수 있어야 하며, 각 개인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세력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 1)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

정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화주의적 관점에 근거한 한국어교육의 방향이다. 교육과정의 대부분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한국적인 것들을 체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대부분 구성되어있으며(안희은, 2015; 정명숙, 2010, 차윤정, 2015), 무조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따르라는 자민족 중심주의(양태식, 2010)의

관점도 엮보인다는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상황과 맥락을 무시한 교재와 교육과정의 획일성이다.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대학에서 발간한 한국어교육 교재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언급된 것이 교육과정과 교재의 획일성이다(민정호, 전한성, 2014; 전한성, 민정호, 2015). 국립국어원에서 나오는 교재로 일괄 적용한다는 것은, 대상별로 실행되는 한국어 교육 내용과 방법이 학습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적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재 내용도 학습자의 실생활과 동떨어져 실제성도 부족하다. 또한 민정호, 전한성(2014), 유해준(2011), 최주열(2015)은 교재 구성의 획일성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획일성이 더 큰 문제라고 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 상황과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과정이 실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다양한 학습자의 수준과 상황에 맞는 교과과정과 단계를 실천할 수 있는 한국어교사의 역할이다. 권순정, 신수영(2010)은 교사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를 존중해야 하며, 인격체로서 인권을 생각하며 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단순한 언어 전달 전문가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다양한 문화성을 지닌 학습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어교사에 대한 교육의 단계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새로운 땅,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의 재구성과 주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육은 글자를 아는 것을 넘어 자신과 세상을 알아가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 2) 비판적 문식성 교육 관점에서의 한국어 교육

다문화 교육은 이주민과 정주민 간에 문화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새로운 문화 창조의 다양성을 이룰 수 있는 다문화적 역량을 함양시키고, 사회의 모든 차별이나 불평등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를 교육하여야 한다(Bennett, 2007). 또한 다문화 교육이 세계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기술 가치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지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타자에 대해 이해하며 상호 소통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다문화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적 가치이다(안희은, 2015).

비판적 문식성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은 첫째, 상호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상호문화주의 핵심은 의사소통과 관계이다. 상호문화주의를 바탕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통분모를 찾을 뿐 아니라, 타자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장한업, 2014; 안희은, 2015). Freire와 Macedo(1987)에 따르

면 이주민들은 '다름'을 인정받고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모국에서의 정체성과 이주국에서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언어를 학습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버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줄 압으로써 본인의 정체성을 재구성해나가야 자신을 지배하는 부당한 권력구조에서 해방되어 주체성을 형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시작일 것이다(권순정, 신수영, 2010).

둘째, 비판적 문식성 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어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Freire가 주장하는 문맹에서 벗어나기 위한 문식성 교육의 의미는 '나'의 주체적 위치를 찾아가는 게 목적이다. 주체적 위치의 '나'는 정체성(identity)을 형성해가는 삶이며, 정체성이란 인종, 사회계층, 성(gender), 문화, 출신국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셋째, 비판적 문식성 교육 관점에서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문제 제기식 수업으로 대화를 통한 실천과 성찰의 프락시스이다. 문제를 인식하고 제기하며 그 문제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사회와의 연계성을 깨닫고,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Shor(1987)에 따르면 Freire가 자신의 삶과 사회 사이의 연관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이 세상 읽기를 시작하면서, 그들 문제의 많은 측면들이 사회적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삶을 새로이 구성하기 위해서 모국을 떠난 존재이며 삶의 주체로서, 우리는 이들의 생애 욕구를 경청하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이지혜, 채재은, 2007).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그들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문제 제기식 수업을 통해 비판적 문식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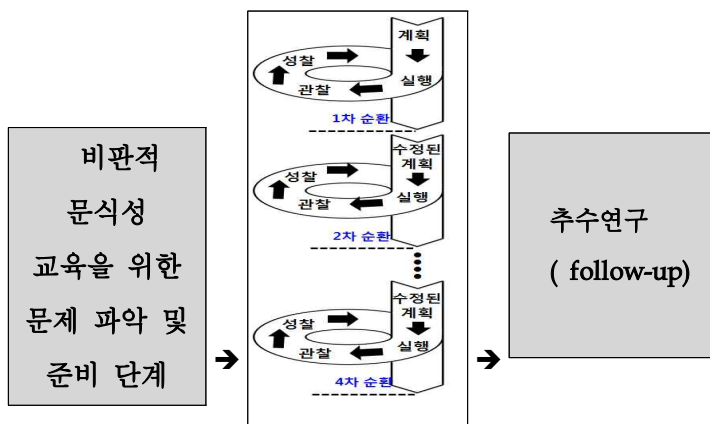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 형성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비판적-해방적 유형의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진행하였다. 조용환(2015)은 실행연구가 실행=연구를 통해서 현장 맥락에 맞게 사태를 해결하고 연구자나 연구 참여자가 실천력과 이론적인



힘을 함께 가지게 되면서 ‘더불어 사는 삶’의 실질적인 개선에 동참하고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이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통해 주체성을 형성함으로써 향후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실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Kemmiss와 McTaggart(1998)은 실험연구에서는 비판적 탐구가 중시되며, 사회와 연구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연구 결과가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하고, 연구는 협력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판적-해방적 교육을 위한 실험연구를 Kemmis와 McTaggart(1998)가 제안한 [그림 1]의 모형에 따라 ‘문제파악 및 계획 단계’ 후 ‘계획 → 실행 → 관찰 → 성찰’의 네 단계를 기본으로 한 ‘순환적 사이클’을 통해 실행하였다. 이 네 단계가 실제에 있어서 서로 뚜렷이 구분되고 각각 완전히 독립되어 실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각 단계의 구분은 논의의 편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림 1] 나선형 모형의 실험연구

##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법무부 산하 K글로벌 센터의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으로서, 말하기와 쓰기의 한국어교육수준이 법무부 산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이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3단계 이상의 중·고급 수준 또는 Topik 4급 이상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6명을 모집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lt;표 2&gt; 연구 참여자의 구성 및 특성

2017년 1월 기준

연구 참여자	국적	학력	나이	거주기간
티프영	베트남	고졸	23	2년 9개월
하잉	베트남	고졸	25	3년 6개월
썸낭	캄보디아	전문대졸	28	3년 5개월
아이다	키르기스스탄	대졸	29	3년 7개월
아령	베트남	대졸	27	1년 8개월
미츠요	일본	대졸	39	6년 9개월

티프영은 베트남 출신으로 23살의 나이에 딸과 아들이 있다. 한국으로 시집가면 돈 벌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도 초청할 수 있다는 결혼회사 직원의 말에 따라 한국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다. 남편은 42살이며 중졸이고 운송 일을 한다. 베트남에서 온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자신도 답답하여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나왔다고 하였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집에서 애만 키우고, 치매 시어머니를 돌봐야하는 상황이 힘들다고 하였다.

하잉은 25살의 나이에 4살 된 아들이 있고,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결혼회사를 통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와 한국말을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써 먹지 못한 부분이 많고,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남편에게 거의 의지할 수밖에 없어 답답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썸낭은 28살의 나이에 3살 된 여자아이가 있다. 문제가 생기면 신랑이 거의 해결해주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계속 고민되며, 아이를 키우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남편한테만 의존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하였다.

아이다는 29세이며 아이는 아직 없으나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 하였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보다 요즘은 자신감이 많이 없어졌고, 스스로 외국인이라는 생각이 위축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고국의 부모를 위해 화장품 판매원을 한다고 하였다.

아령은 베트남 출신으로 28세이고 남편은 40세이며 아이는 없다고 하였다. 지금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데 아들만 생각하고 무조건 남편 말에 순종하라고 해서 속상하다고 한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남편이 다 해결하고 본인이 해결하고 싶어도 남편이 못하게 한다고 한다.

미츠요는 일본 출신으로 39세이며 8살 난 딸아이와 6살인 아들이 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니나 자신도 돈을 벌어야하는 상황인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안타깝고, 주변과 거의 소통이 없으며 남편과도 일상적인 소통 외에 깊은 대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살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남편에게만 의존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힘들어 하며, 자존감도 낮아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두 K글로벌 센터를 다니며 소그룹 형태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 3. 연구 절차

연구 진행시기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로 구체적인 실험연구의 단계별 활동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실험연구의 순환별 활동내용

문제 파악 및 계획 단계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조사</li> <li>▪ 현장 상황맥락 이해</li> <li>▪ 전체 계획 및 구체적인 연구 설계</li> <li>▪ 결혼이주여성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li> <li>▪ 프로그램의 틀과 실행 절차 연구</li> </ul>		
↓		
실험연구 실시		
1 차 순환 / 문제 제기	1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포(rapport) 형성</li> <li>▪ 결혼이주여성의 주제성 형성을 위한 비판적 문식성 교육 목표 이해</li> <li>▪ 결혼이주여성들의 문제 제기에 의한 주제생성</li> </ul>
	실행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제기 내용 분류에 따른 하위주제 생성</li> <li>▪ 문제 제기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li> </ul>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제기 후 저널 쓰기</li> <li>▪ 수집된 자료 분석</li> <li>▪ 개인 1차 면담</li> </ul>
2 차 순환 / 대화 와  토론	수정된 2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순환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를 주제별로 글쓰기를 한 뒤 한 명씩 돌아가며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원인과 해결 방안으로 이어가기.</li> <li>▪ 대화와 토론의 활성화</li> </ul>
	실행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성 주제에 대한 대화와 토론 진행</li> <li>▪ 대화와 토론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li> </ul>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와 토론 후 저널 쓰기</li> <li>▪ 수집된 자료 분석</li> </ul>
3 차 순환 / 실천	수정된 3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순환 성찰을 근거로 문제 제기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공유하는 토론 과정에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필연적으로 사회와 연결되면서 좀 더 확산적인 토론과 실천의 기회 계획</li> <li>▪ 실천하고 공유하기</li> </ul>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와 토론 내용 실천하고 공유하기</li> </ul>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천하고 공유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li> </ul>	2017년 3.4-3.13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와 토론 후 저널 쓰기</li> <li>▪ 수집된 자료 분석</li> </ul>	
4 차 순 환 / 성 찰	수정된 4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차 순환 성찰을 근거로 연구 참여자 자신의 실천과 행동을 성찰하기 시작하면서, 연구자는 생성주제인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이해를 위해 계획을 설립</li> <li>▪ 실천 후 성찰하기(프락시스)</li> </ul>	2017년 3.16-3.20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성 주제에 대한 대화와 토론 진행</li> <li>▪ 실천 후 성찰하기(프락시스)</li> </ul>	2017년 3.16-3.20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천 후 성찰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li> </ul>	2017년 3.16-3.20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와 토론 후 저널 쓰기</li> <li>▪ 수집된 자료 분석</li> <li>▪ 연구 참여자 개인 면담과 포커스 그룹면담</li> </ul>	

문제 파악 및 계획단계에서는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구 주제를 명료화하였다. 실행연구를 위한 전체 계획 단계에서는 비판적 문식성 교육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단계와 방법으로 Freire의 비판적 문식성 교육의 원리인 문제 제기식 교육, 대화와 토론, 실천과 성찰의 프락시스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상적 삶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불평등의 부분을 문제 제기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대화와 토론의 과정에서 인식하게 한다. 또한 변화를 위한 실천으로 자신의 삶에 통제권을 가지고 기존의 억압적 사회구조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실행 과정은 계획, 실행, 관찰, 성찰로 구분되며 네 차례에 걸친 순환으로 이루어진다. 1차 순환의 계획은 문제 제기의 단계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간의 라포 형성과 프로그램의 목적 이해, 문제인식과 제기 등이다. 실행에 있어서는 라포 형성을 위해 각 개인의 상황과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으면서도 추상적인 엽서 크기의 그림을 10종류 준비하여 계획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그림을 선택하여 상황을 연결 지어 소개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현재 자신이 가장 힘들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주제로 브레인스토밍 하였고, 연구자는 이를 포스트잇에 바로 적어 분류하여 생성주제를 형성하였다. 생성된 주제는 ‘관계(남편, 시댁), 자녀(육아, 이중 언어), 불평등(차별적 경험들)이었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미리 준비된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의 요구인 생성주제를 하나씩 토론 과정을 거치고 연구자는 생성주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가는 과정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1회-3회 수업에서 약 20-30분씩 프로그램의 목적 이해를 위해 ‘비판적 문식성’과 ‘주체성’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과 사진의 PPT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3회 수업까지 연구자의 설명이 이어졌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는 목적을 개념적으로 접근한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바로 생성주제 토론으로 들어갔다. 생성한 여러 주제 가운데 마음 열기가 좀 더 쉬운 주제어인 '관계'를 선택하여 남편과 시댁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자랑거리가 주를 이루다가 차츰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이 나왔다. 연구자는 이를 바로 포스트잇에 적게 하여 8절지 도화지에 분류하여 제기된 문제를 하나씩 깊이 있는 상호작용과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한 매개자료로 활용하였다. 각자 마음에 물어두거나 당연히 했던 문제가 제기되면서 구체적인 문제 상황의 윤곽을 드러내면서 적극적인 진행을 위한 2차 순환을 계획하였다.

2차 순환은 대화와 토론의 단계로 1차 순환에서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생성된 주제인 '남편과 시댁과의 관계'에서 제기된 각자의 문제를 자세히 글로 표현하고 발표하면서 바로 깊이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였다. 글로 표현하기 전에 연구자는 기존 다른 결혼이주여성의 수기집에 있는 비슷한 상황의 수기를 읽기 자료로 준비하였다. 남편과 시댁과의 갈등을 표현한 수기를 준비하여 함께 소리 내어 읽은 뒤, 자신의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글로 표현했다. 그런 다음 한 명씩 돌아가며 문제를 말하면 함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토론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쓴 저널이 바로 수업의 읽기자료이자 교재로 활용된 것이다.

연구 참여자 모두의 참여를 위해 각자 자신들의 생각과 해결 방법을 토론 중간 중간에 포스트잇에 기록하게 한 뒤, 전지에 미리 붙여 놓은 해당 문제 제기 저널 아래에 붙이도록 하였다. 썬닝에 의해 남편의 텔레비전 중독과 관련된 육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깊어 가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해결점 모색 과정에 텔레비전이나 게임 중독에 걸리는 원인과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여 자료를 찾아오는 것을 과제로 내주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와 같이 문제 제기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토론 과정에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필연적으로 사회와 연결 되었다. 그래서 주제를 '남편과 시댁'에 이어 사회적 구조와 맞닿은 것으로 옮겨가기 위해 3차 순환 과정을 계획하였다.

3차 순환은 실천과 공유의 단계로 생성된 주제 가운데 '자녀 교육'과 맞물려 '이중 언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의 재구성을 위한 실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녀 교육과 언어 교육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가치와 연계되면서,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다문화 가정에서의 이중 언어 교육에 관한 책과 연구 자료를 탐색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읽기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읽고, 말하고, 쓰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또한 자료를 함께 읽고 대화와 토론 뒤 연구 참여자 저널 쓰기로 이어졌다.

매 회 만날 때마다 일주일 동안 작은 실천을 한 가지 이상 한 뒤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더 나은 실천을 모색해 갔다. 차츰 작은 실천이 가져오는 변화에 놀라워하면서 토론이 활기를 띠고 주변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가정에서부터 작은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제에서 출발하였지만 사회 구조와 연계된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재조명하고 각자의 기준과 주체적인 의식 형성을 위한 생성주제를 고려하여 4차 순환을 계획하였다.

4차 순환은 생성 주제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구 참여자 자신의 삶에서부터 성찰하기 시작하였다. 4차 순환은 성찰의 단계로 그동안 당연시한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경험과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고 사회의 변혁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함께 토론하였다. 또한 매주 실천한 내용을 서로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응집된 역량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자신의 작은 실천을 문제 제기와 연결 짓고 숙고하는 반복적인 성찰의 과정을 가졌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문제 인식, 대화와 토론의 내용, 실천과 결과에 대한 성찰을 성찰 일지에 담는 기회를 가져 비판적 성찰의 기회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변화와 다른 참여자의 변화된 모습을 서로 보면서 자신의 삶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주체적인 힘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 4.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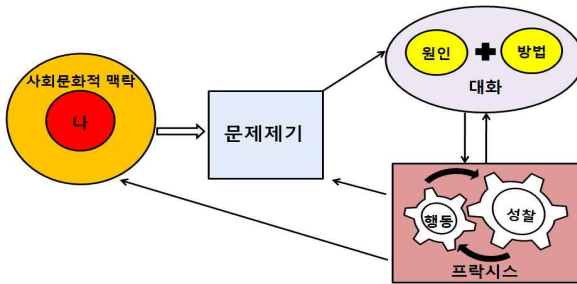
자료 수집은 문헌자료, 참여관찰, 개별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7년 1월 16일부터 2017년 3월 20일 까지 결혼이주여성의 비판적 문식성 교육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로 11회 중 10회의 수업 동영상과 녹음 파일, 11회의 관찰, 실행 결과물과 연구자 일지 11회, 개별면담 2차, 포커스 면담 1회, 저널쓰기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수집에 의한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은 Creswell(2009)의 자료 분석과 해석 단계에 따라 진행하였다. 먼저 수업 2차시 후에 이루어진 1차 개인 면담과 수업 10차시 후에 실시한 개인면담은 개인별로 2시간 이상씩 이루어졌다. 마지막 11차시 후에 이루어진 포커스 면담 내용 등은 녹음 후 전사하였다. 수업 동영상은 여러 번 관찰하면서 수업 과정 중 수업 목적과 관련된 부분을 개별적으로 기록하였다. 수업 차시마다의 저널 쓰기 역시 반복적인 읽기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과 태도 변화 등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을 메모하였다. 이어 코딩과정을 통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작하여 범주화하고 이름을 붙인 다음 카테고리화 주제를 생성하고 하위 주제들은 주제성 구성조건을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한 뒤 주제성 형성 과정을 해석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엄격성 부분에서는 면담 자료, 수업 녹화 내용, 연구 참여자의 저널과 실행 결과물, 연구자 성찰일지 등 다양한 출처의 공통된 내용을 바탕으로 삼각 검증(triangulation) 방법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내용을 읽게 하여 구성원 검토(member checking)를 하였다. 서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관찰자로 참여한 동료 2명에 의한 보고(peer debriefing)와 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 대학 강의를 10년 이상 맡고 계신 외부인사(external auditor)에게 연구 전반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연구 윤리의 문제는 연구 참여자의 수업 과정, 프로그램 수행 중의 결과물은 모두 연구자의 연구에만 사용됨을 명시하여 참여자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에게 본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였다.

#### IV. 연구결과

비판적 문식성 프로그램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 형성 과정을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주체성 형성과정

[그림 2]에 따라 먼저 Freire의 문제 제기식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개인의 갈등, 어려움, 문제, 불평등을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인식하였다. 그동안 길들여진 무력감과 침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연시 했던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이를 제기한 뒤 연구 참여자끼리 대화와 토론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하였다.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와 연결시켜 생각해보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각자의 경험적 지식을 공유하였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성찰하는 프락시스의 나선형 반복을 통해 개인과 사회 변혁을 위한 주체성을 형성해 나갔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의 4차에 걸친 단계별 실행결과에 따른 주체성 형성 과정을 통합하여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lt;표 4&gt; 단계별 주체성 형성 정리

순환	단계	회기	주체성 형성
1	문제 제기	1회기 -3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묵문화에서 벗어나기</li> <li>▪ 경청이 부족한 삶에 대한 문제 제기</li> </ul>
2	대화와 토론	4회기 -6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관점에 대한 포용</li> <li>▪ 다양한 정보 탐색</li> <li>▪ 공감 능력 형성</li> <li>▪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비판적 사고</li> <li>▪ 신뢰성 형성</li> </ul>
3	실천	7회기 -9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평등한 관계로부터 소외 극복 노력</li> <li>▪ 모국 문화에 대한 가치 인식</li> <li>▪ 자신의 삶에 통제권 갖기</li> </ul>
4	성찰	10회기 -11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견, 차별로부터 해방을 위한 한 걸음</li> <li>▪ 저널 쓰기 능력 증가</li> <li>▪ 행동 전, 중, 후에 생각하기</li> <li>▪ 미래에 대한 계획</li> </ul>

## 1. 1차 순환 : 문제 제기

### 1) 침묵문화에서 벗어나기 시작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 형성을 위한 비판적 문식성 교육의 1차 순환인 문제 제기 단계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목적을 이해해서라기보다는 막연한 한국어교육, 사회성 관련 교육이라는 생각으로 참여했다. 또한 같은 결혼이주여성이라 해도 국적의 차이, 낮은 사람 등 생소함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쉽게 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여기서 자기가 털어놓은 이야기가 혹 소문이 나는 것에 대한 염려와 불신이 컸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대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제가 한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혹 다른 베트남 친구들한테 알려지는 거 싫어요. 남의 말 잘 옮겨요(티프영, 1차 면담).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는데 뭐냐면 친구가 나의 고민 나의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까봐 많이 걱정했다(썸낭, 2017. 3. 20. 저널).

연구자는 이런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상황을 볼 수 없다면 문제를 제기조차 할 수 없기에 처음에는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모습을 추상적으로 담아 낸 그림에 자신을 투사하여 소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적응만을 우선 시 해왔던 지금까지의 삶과 침묵해 온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꿈꿨던 것들 못하고 그냥 똑같은 일상생활만 하고 있는데 행복한 일 아니다. 뜻대로 못하니까 정말 죽을 만큼 가슴이 아프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을까? 가슴이 아주 답답하다. 우리 인생도 의미 있다(썸낭, 2회기 저널).

남편한테 어머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하지 말라는 말만 하고 변화가 없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이 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명절에 시골에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갑자기 올라오셔서 모시고 있자니 너무나 힘들어서 다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어요. 왜 무조건 참고 모셔야 하죠? 나도 하고 싶은 거 많고 꿈도 있어요(티프영, 1차 면담).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비슷한 상황 때문인지 서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가족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 거리를 두고 성찰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도, 알려하지도 않고 답답해하며 불만만 가득 차 있었다. 티프영과 썸낭은 그동안 그냥 참고 있다가 폭발하면 불화와 갈등만 반복되다가 가출이나 이혼 등을 자꾸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거나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냥 이대로 참고 살아야하는 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프로그램 진행 과정 중에 문제 제기 하면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묶여 살아야했던 삶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조금씩 침묵의 문화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 2) 경청이 부족한 삶에 대한 문제 제기

썸낭은 가족과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아내와 어머니, 며느리로서의 역할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속상하다고 하였다. 참여 연구자 대부분이 인정과 존중보다 적응과 동화 속에서 자신의 문제에 경청해주지 않는 가족과 주변으로부터의 소외 상태를 자각하고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주제성 형성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 2. 2차 순환 : 대화와 토론

### 1) 다양한 관점에 대한 포용

2차 순환인 대화와 토론의 단계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 스스로 생성한 주제인 '관계'의 하위

주제인 '남편과 시댁과의 관계'로 대화와 토론을 하였다. 자신들과 가장 가깝고 믿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로부터 오히려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의논할 데가 없는 상태에서 불만이 축적되어 있었다.

여기 모임 와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 나누니까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옆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이 다양해서 다행이구나.(미츠요, 2차 면담)

다양한 의견만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지고 자신감도 늘어났다. 사회 관계망이 취약하여 얻을 수 없는 정보와 관계를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구성원 간에 신뢰성이 커져갔다.

## 2) 다양한 정보 탐색

티프영은 설에 올라오신 시어머니가 치매기를 보이며 식사를 많이 하시고 똥을 아무데나 싸서 여기저기 묻히고 다녀 정말 힘들다고 하였다. 형제도 많은데 왜 막내인 남편이 떠맡아야 하는지와 아이들 둘만으로도 사는 게 정신없는데 정말 다 팽개치고 집을 나가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를 비롯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각자 조부모의 치매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통을 공감해주었다. 그리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해결책을 함께 찾았다. 씬냥은 수업 중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주제와 관련하여 스마트폰, 게임, 텔레비전 중독 등 집에서도 정보를 검색하여 내용을 밴드에 올려보기를 하면서 다양한 정보 찾기에 조금 익숙해졌다고 한다. 그동안 잘 읽지 못해 찾아보지 않았던 정보 검색을 함께 하면서 자신감도 얻고 여러 정보를 접하면서 나와 사회를 보는 시야가 확장되었다고 하였다.

## 3) 공감 능력 형성

각자의 갈등과 문제들을 털어 놓다보니 자신만 그런 어려움과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더욱 활기를 띠고 깊이 있는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여럿이 같이 토론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뭐를 고민하고 있는 거 생각하고 사회생활 어떻게 하는지 나랑 그 친구랑 같은지 공통점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 친구도 힘들고 나도 여기까지 산 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내가 앞으로 많이 힘들더라도 참고 모든 거 혼자 해결하지 않고, 같은 외국인끼리도 대화하고 나서 집에서 남편과 얘기해서 마음을 풀 수 있고, 그 다음 남편과도 싸움이 없어졌잖아요(웃음)(씬냥, 2차 면담).

티프영은 서로의 문제를 털어놓는 과정만으로도 마음의 여유를 찾고, 팽배해 있던 불만이 해소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치매 걸린 시어머니에 대한 측은지심과 중간에 끼어 맘고생이 큰 남편에 대한 이해심이 생기면서 불안했던 가족관계에 평정심을 찾았다고 하였다. 개인의 갈등과 어려움을 서로 표현하면서 심리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상호 정서적인 에너지가 충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 4)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비판적 사고

개인에게 발생한 문제들이 사회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게 되었다. 개인에 대한 무력과 자책에서 벗어나 희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현되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면서 그 원인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와 관습 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령은 손이 크신 시어머니가 자신을 골탕 먹이려고 음식을 많이 만드시는 줄 알고 1년 동안 오해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의 음식 나눔의 전통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시어머니와 속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함께 만들면서 양을 조절하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인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아름답던 관습과 문화가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을 경우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상호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자각하는 과정이었다.

#### 5) 신뢰성 형성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제나 어려움을 털어놓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긴다고 하였다. 구성원끼리 어디까지 이야기를 털어 놓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하자 그동안 참아왔던 진지한 내면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 대화와 토론도 능동적이고 열성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로의 갈등과 문제에 대해 염려하고 격려해주었다.

전에 문제 생기면 혼자만 생각하고 해결했어요. 수업을 통해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를 좀 풀어서 마음에 좋았습니다. 제 문제가 많은데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없지만 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아령, 2차 면담).

같이 토론하거나 대화하며 의심하는 것, 고민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믿음감이 생겼다. 나는 원래 문제 생길 때 항상 혼자서만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듣지 않고 존중

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수업 덕분에 모든 문제들은 털어내고 얘기했다(썸냥, 11회기 저널.)

### 3. 3차 순환: 실천과 공유

#### 1) 불평등한 관계부터 소외 극복 노력

3차 순환인 실천과 공유의 단계에서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가족과 주변에서의 불평등한 관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장 가까운 남편과 시댁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소외되고 무시되는 경우 더 이상 참기보다는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예를 들면 연구 참여자 모두 수업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자 자신에 대한 태도도 우호적으로 달라졌다고 한다. 그런 소통의 과정이 서로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자신이 당당해지고 소중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남편이 말하는데 내가 많이 변했대요. 여기서 함께 얘기한 것처럼 내가 천천히 차분하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 반복하면서 편안해졌고 문제 생기거나 대화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고, 나랑 얘기 위해 요새 밖에 놀러 많이 가요. 남편도 자기가 텔레비전 안보는 게 신기하다고 해요.(썸냥, 2차 면담)

#### 2) 모국문화에 대한 가치 인식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아이를 키우면서 자녀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고민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중 언어교육’에 대한 대화와 토론 과정에서 모국어 교육보다 한국어교육에 더 신경을 쓰고 모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갈등을 겪고 있었다. 자식만큼은 차별 받지 않는 미래를 만들어 주고픈 마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화와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모국어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아이에게 국제적인 면모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행동에서도 변화를 보였다. 아이에게 엄마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함으로써 엄마와의 진정한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의 단계에 맞는 모국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제는 아이 있으면 한국어, 베트남어 같이 써요. 할머니, 아빠 한국말 쓰고, 엄마랑은 베트남어 써요. 통화하고 외할아버지 할머니와 소통할 수 있어요.(8회기 수업 동영상, 아령)

전보다 정을 많이 줄 수 있어요. 베트남어 나는 쉬우니까 정 많이 줄 수 있어요. 한국말 잘 모르니까 이상한 말 하면 정 줄 수 없어요. 아이들 한국말 배우고 아빠랑 한국말하고, 엄마랑 베트남말 하면 사랑하는 말 더 많이 해줘요. 내 모국어로 했을 때 더 많이 이해해주고 사랑 많이 줄 수 있어요.(8회기 수업 동영상, 티프영)

### 3) 자신의 삶에 통제권 갖기

남편 의존적인 삶으로 인해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가족과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다. 또한 아이 교육과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서히 독립적인 삶으로 변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면서 자신의 삶에 결정권과 통제권을 늘려 나갔다. 모든 작은 실천들을 구성원 간에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천을 유지할 수도 있었다.

애기 병원 가는 거 남편 없이 다녀요. 스스로 하는 게 많이 늘었어요. 내가 병원 데려 가고, 이런 프로그램 내가 찾고 보고, 아기 병원, 이런 프로그램 내가 알아서 신청하고, 출입국 비자 연장하는 거 혼자 가서 할 수 있어요. 혼자하고 잘 할 수 있는 거 늘었어요(썸냥, 2차 면담).

## 4. 4차 순환: 성찰

### 1) 편견 차별로부터 해방을 위한 한 걸음

4차 순환인 성찰의 단계는 지역 사회에서 겪는 편견과 차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와 주변을 변화시켜 나갈지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자신이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거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국제결혼을 했다는 생각에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편견과 차별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고 한다. 하잉은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한다. 모두들 잊고 싶고 창피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많았지만 서로의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마음도 가벼워지고 이제는 참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문화센터에 선생님이 뭔가 차별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애만 외국인 이어서 안 놀아주는 거예요. 다른 엄마와 아기는 놀아주는 거예요. 나 너무 속상해. 만약 선생님이 잘못하는 거면 사이트에 댓글 올릴 수 있어요. 제가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는 너무 잘 놀아서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 잘 한다고 해서 오해했어요. 확인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썸냥, 2차 면담).

티프영은 병원에서 자신의 아버지 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지만 자신이 외국인이라고 설명을 안 해주고,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듯 웃으며 이따 남편에게 해준다고 하며 결국 남편에게도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 파악에서 간호사의 인종차별적인 무시일 수도, 또 다른 배려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쌤낭은 주민 센터에 등본을 떼러 갔는데 불친절한 태도와 반말에 무척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였다. 쌤낭에게 반말을 한 것은 외국인이라 알고 무시한 행동으로 이는 인종 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쌤낭과 티프영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천을 하고 그런 작은 행동이 쌓이다 보면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성찰 과정을 통한 행동은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하는 기회였다.

## 2) 저널 쓰기 능력 증가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대화와 토론한 내용을 저널 쓰기를 통해 성찰의 기회를 늘려갔다. 초기에 가졌던 글쓰기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철자에 크게 얽매이지 않으면서 맘껏 자신의 생각을 펼치거나 남편과의 간접적인 소통 도구로 사용하였다. 처음 저널쓰기에서 연구 참여자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국어 문법이나 철자법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연구자는 처음부터 글자는 많이 틀려도 괜찮으니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쓰는 훈련을 갖도록 중재하였다. 수업 중에 저널 쓰기를 하거나 과제로 내주었을 경우에도 모두들 열심히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왔다. 연구 참여자 모두가 생각의 양도 처음에는 공책의 반도 쓰지 못했는데 6,7회 수업 후부터는 적으면 2쪽이고 4쪽까지 저널을 써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단지 글을 쓴다는 것이 글자를 틀리지 않고 많이 쓰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사고력과 성찰 능력이 향상되면서 진실 되고 깊은 사고력을 형성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쓰기와 대화하는 것이 좋아졌어요. 쓰기 어렵지만 생각하고 써서 마음 속 생각 다 쓰고 글자 실수하면 고쳐주어서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 남편하고 그 날 수업 이야기해서 같이 이야기해요. 수업 내용과 뭘 배우고 이야기 하였는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좋은 수업 끝나니 어떻게 하나며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했어요. 저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2차 면담, 티프영).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저널 쓰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자신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거나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진지하고 깊이 있게 글을 써서 남편에게 보여주었다. 또한 자신의 글을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철자보다 문장의 어색함이나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말하기, 듣기, 쓰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였다.

### 3) 행동 전, 중, 후에 생각하기

썸남, 티프영, 하잉, 아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거나 회피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어떤 행동을 하기 전, 중, 후에 성찰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태도들이 나타났다. 이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면서 성찰 후 행동에 옮기고 그 행동에 대해 다시 성찰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일이 생기면 별로 생각도 안하고 그때그때 생기면 말해요. 그래서 남편과 더 싸우고 그리고 후회 많이 했어요. 지금은 바로 말하지 않고 생각하고 말해요. 미리 잘 생각하고 말하는 게 생겼어요. 왜 그런지 생각해요. 천천히 생각하고 노력해야 해요. 그럼 후회 조금해요. 그리고 이 수업을 한 후에 나는 바로 말하지 않고 다시 생각해보고 정확하면 말해요. 그래서 실수한 것이 좀 줄일 수 있고 후회도 조금 하고 남편과 싸우는 것도 줄었어요. 나는 정말 좋았어요.(티프영, 2차 면담)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갈등도 많았는데, 지금은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 중, 후에 생각하게 되면서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도 좋아지면서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가까운 남편이나 시댁과의 관계에서 참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여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차분히 생각하면서 말을 감정적으로 함부로 하는 경우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갈등도 줄어들고 관계가 개선되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 4) 미래에 대한 계획

연구 참여자들은 매회기 실천을 공유하면서 의존적인 삶을 서서히 독립적인 삶으로 바꾸면서 다양한 경험이 늘었다고 한다. 티프영과 아령, 하잉 역시 미래에 대해서도 막연함과 남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집도 마련하고 우리 아기도 잘 키울 수 있을지 미래에 대한 여러 방면으로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아주 사소한 일이어도 스스로 해결하면서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였다.

옛날에 안 생각했던 거, 많이 걱정 없이 살고 했는데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남편 나이 많아 일 오래 못해요. 내가 배워서 돈 벌어야 남편과 애기 잘 살 수 있어

요. 남편과 얘기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생각해요(하임, 2차 면담).

의존적이고 수동적이었던 자신의 삶에서 서서히 미래에 대한 계획도 꿈꾸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기대와 요청 사이에서 자기표현을 하면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아 가면서 주체성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비판적 문식성 교육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변혁하기 위한 주체성형성 과정을 미약하나마 밝힐 수 있었다. 물론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실력이 중급이상일지라도 듣고, 이해하고, 말하고, 쓰는 것이 서툰 상황에서 얼마나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해하고 변화할 수 있었는가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짧은 일정 속에서도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하며 대화와 토론, 실천의 과정을 통해 학습의 주체로서 또한 자신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먼저 연구 참여자인 결혼이주여성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은 ‘생성주체’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를 높여주고 주체성 형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 되어주었다. 왜냐하면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생성된 주제는 ‘지금 여기에서’ 출발한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요구였기 때문이다. 이는 민정호, 전한성(2014), 유해준(2011), 김서형(2015)의 결혼이주여성의 특성과 환경 등 상황을 고려한 교육 내용과 중요성을 강조한 주장과 일치하는 출발이었다. Freire(1970, 1993)도 문식성 교육이 학습자의 인지적 이해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학습자 삶으로부터 열망이 반영된 구체적이고, 체험적이며, 현재 상황으로부터 출발해야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Fiore와 Elsass(1982)는 학습자의 자원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은 지루하고 힘 빠지고 무관심을 자아낼 뿐이라고 한 주장과 같은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대화와 토론의 방식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가운데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고, 포용하며, 공감하면서 상호 정서적인 지지와 신뢰성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Shor(1987)가 학습자는 사실 획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웃과의 사회적 교환 속에서 현실을 재구성함으로써 학습 과정에 들어가며, 자신의 경험에 더해 토론 내용을 생각하며, 그 경험을 더 넓은 사회적 맥락과 연결시키면서 대안을 생각해 낼 수 있게 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Freire(1970, 1993)는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교사-학생관계인 일방적인 ‘전달(communique)은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와 같다. 신미식(2010)은 한국 문해 교육에서 학습자를 학습의 주체로서 학습자와 대화하는 교육방법을 활용해야한다고 하였는데 이 주장과도 일치한다. 또한 교육 경험에 참여할 때 자신을 새로이 자각하고, 새로운 존엄성을 획득하며, 새로운 희망에 부풀게 한다(Freire, 1970, 1993)는 주장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화와 토론의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10명 내외의 구성원과 구성원들의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만 하는 조건이 전제되어야하기 때문에 구성원 모집에 어려움을 가졌다. 처음 모집은 8명이었으나 대부분 결혼이주여성들의 아이들이 어리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참여하지 않았으며, 한꺼번에 많이 빠지는 날은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또 수업에 빠지게 되면 지난 수업에서 이어진 토론주제는 수업 이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6명의 참여자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기 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 연구의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만약 이후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중급 이상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필수 과정으로 수업 시간이 인정된다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비판적 문식성 교육과정에서 대화와 토론을 매개할 다양한 자료 활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PPT자료와 결혼이주여성의 수기, 연구 참여자 저널, 인터넷 정보 검색 자료, 관련 도서의 일부분이 활용되었다. 영화, 드라마, 노래, 그림, 사진, 풍자, 콜라주, 이야기, 동영상 등 결혼이주 여성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다양한 매체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상황에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해 갈 수 있고, 맥락에 따라 적합한 매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다양한 관점의 대화와 토론을 유도하고 사고를 더욱 촉진 시킬 수 있고 역동적인 수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식성교육은 기능적 문식성 교육을 넘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체성 형성을 위한 비판적 문식성 교육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가족해체와 자녀와의 갈등 등의 문제가 기능적인 한국어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상적으로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형성하기 위한 환경과 조건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관점은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실행되어야한다. 문화적 차이가 또 다른 계급관계를 형성하여 차별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제공 되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적응을 위해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와 모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 유지와 재구성 과정이 상호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진행되

어야한다. 미리 짜여진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과 단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인 결혼이주여성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계획을 설립하고 실행하면서 상황과 맥락이 함께 어우러진 수업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설계 시 학습자에 대한 욕구 파악 우선 시와 학습 상황과 환경에 대한 사전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론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비판적 문식성 교육과정이 자신과 자녀, 주변 가족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갈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권순정, 신수영(2010).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실 체험에 담긴 문해교육의 의미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13(2), 83-113.
- 김보영(2011). 결혼이민여성의 부모역량강화에 관한 실험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김상욱(1996). **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서형(2015).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 교육. **청람어문 교육**, 155, 151-175.
- 김진희(2016). **다문화교육과 평생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story.
- 민정호, 전한성(2014).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개별성을 고려한 한국어교육의 실천방향 탐색. **한국어문화학**, 11(3), 93-118.
- 신미식(2010). 하나의 담론으로서 한국 문해 교육의 비판적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55, 273-294.
- 신승혜(2015). 결혼이민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상호문화교육 방안. **국제지역연구**, 19(1), 33-60.
- 안희은(2015). 상호문화주의에 기반 한 한국어교육.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양태식(2010). 다문화 사회 소통 문제와 한국어교육의 과제. **한국초등교육**, 21(1), 49-66.
-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1-4.
- 유해준(2011).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구성 방안. **다문화콘텐츠연구**, 10, 29-48.
- 윤여탁(2015). 한국에서의 문식성 교육의 반성과 전망. **국어교육연구**, 36, 535-561.
- 이규호(2005). **사회화와 주체성**.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성림, 차희정(2016). 한국 내 결혼이주 여성의 다문화 체험과 정체성 구성. **한중인문학연구**, 3, 163-184.
- 이성희(2016).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상호 문화 교육 방안: "동화"를 넘어서 "통합"을 위한 문화 교육의 설계. **은지논총**, 48, 141-166.
- 이재기(2009). 문학과 독서의 상생적 조망: 문학 교육과 문식성 신장. **독서연구**, 22, 115-158.
- 이지혜, 위영은(2013). 비문해자 학습의 일상성: 그들은 어떻게 문자세계를 극복하는가. **평생교육학연구**, 19(4), 51-78.
- 이지혜, 채재은(2007). 다문화가정시대 문해교육의 대안적 접근: 영미의 가족문해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7(1), 29-52.
- 이화선(2015). 한국 다문화정책의 편향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지위. **한국융합인문학**, 3(2), 7-24.
- 이훈병(2016).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및 교육프로그램의 우선순위 분석. **인문학연구**, 50, 373-397.
- 장한업(2014). **이제는 상호문화 교육이다: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대한**. 서울: 교육과학사.

- 전한성, 민정호(2015).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1에 관한 비판적 소고. *한국언어문학*, 95, 581-610.
- 정명숙(2010). 다문화 시대의 한국어교육. *한국어문화교육*, 4(2), 131-152.
- 조용환(2015). 현장연구와 실행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8(4), 1-49.
- 차윤정(2015). 한국 생활의 경험과 결혼이주여성의 언어 의식 변화. *코기 토*, 77, 223-251.
- 최주열(2015). 다문화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과정 운영 실태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2(1), 167-188.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17).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1월호.
- 통계청(2015). 2015년 혼인·이혼 통계.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 Bennett, C. I. (2007).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김옥순 역(2009), 서울: 학지사.
- Brookfield, S. D. (2012). Critical theory and transformative learning. In E. W. Taylor & P. Cranton (Eds). *The handbook of transformative learning* (pp. 131-146).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Connolly, B. (2016). 'Really useful research' for real equality and justice in adult and community education. *Adult Learner: The Irish Journal of Adult and Community Education*, 87-99.
- Creswell. W. J. (2009).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김영숙, 류성림, 박관우, 성용구, 성장환, 유승희, 임남숙, 임청환, 정종진, 허재복 공역 (2011). 연구방법: 질적, 양적 및 혼합적 연구의 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 Elias, J. & Merriam, S. (1997). *Philosophical foundation of adult education*. 기영화 역(2002). 성인교육의 철학적 기초. 서울: 학지사.
- Fiore, K. & Elsasser, N. (1982). Strangers no more: A liberatory literacy curriculum. *College English*, 44(2), 115-128.
- Foucault, M. (2001). *L'herméneutique du sujet*. 심세광 역(2007). 주체의해석학. 서울: 동문선.
- Freire, P. (1970, 1993). *Pedagogy of the oppressed, continuum* 남경태 역(2002). 페다고지. 서울: 그린비.
- Freire, P. & Macedo, D (1987), *Literacy: Reading the word and the world by Paulo Freire and Donald Macedo* 허준 역(2014). 문해교육: 파울로 프레이리의 글 읽기와 세계 읽기. 서울: 학이시습.
- Giroux, H. A. (1983). *Theory and resistance: A pedagogy for opposition*. South Hadley, Mass: J. F. Bergin Pub.
- Harris, T. L. & Hodges, R. E (2005). The literacy dictionary.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49-49.

- ILA (2017). <https://www.literacyworldwide.org/why-literacy> (2017. 3. 7. 검색)
- Kemmis, S., & McTaggart, R. (1998). *The action research reader (3rd ed.)*. Geelong, Victoria, Australia: Deakin University Press.
- Merriam, S. B. & Bierema, L. L. (2013). *Adult learning: Linking theory and practice*. 최은수, 신승원, 강찬석 역(2016). 성인학습 이론과 실천.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Mezirow, J. (1978). *Education for perspective transformation: Women's re-entry programs in community colleges*.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OECD (2000). Measuring student knowledge and skills: The PISA 2000 assessment of reading, mathematical and scientific literacy.
- Rapoport, R. N. (1970). Three dilemmas in action resea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avistock experience. *Human Relations*, 23(6), 499-513.
- Shor, I (1987). *Freire for the classroom A sourcebook for liberatory teaching*. 사람대사람 역(2015). 교실을 위한 프레이리: 현장 교육을 위한 프레이리와 비고츠키의 만남. 서울 : 살림터.
- Venezky, R. L. (1990). Definitions of literacy. *Toward defining literacy*, 2-16.

\*논문접수 2018년 2월 2일 / 1차 심사 2018년 3월 9일 / 2차 심사 2018년 6월 8일 / 게재승인 2018년 6월 14일

\* 김효숙: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독서교육을 전공하고, 송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가톨릭 대학교 초빙교수로 있으며, 한국독서교육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 E-mail: reading36@naver.com

\* 이경화: 송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khlee@ssu.ac.kr

Abstract

## Action Research on Subjectivity Formation of Married Migrant Women Through Critical Literacy Education\*

Kim, Hyosook\*\*

Lee, Kyunghw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subjectivity of marriage migrant women to transform social inequalities by recognizing and critically reflecting their problems through critical literacy education. We conducted a step-by-step process of problem-posing, dialogue, discussion, praxis, and reflection based on Freire's critical literacy education for six married immigrant women of the global center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The result was that the married immigrant women began to escape from a silent culture, recognizing the problem that people don't listen. In the stage of dialogue and debate, critical thinking, diverse perspectives, and empathy were demonstrated while linking personal problems to social dimension and identifying the causes. In the practice stage, we focused on efforts to acquire autonomy for life and overcome unequal relationship and alienation through small practice and sharing. In the reflection stage, critical reflection through journal writing was activated, planning for the future while escaping from dependent life.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immigrants should be to form the subjectivity as the subject of the dignified life by executing critical literacy education beyond functional literacy education.

Key words: marriage migrant women, subjectivity, critically reflecting, critical literacy, action research, freire

---

\* Editing and supplementing doctoral thesis.

\*\* First author, visiting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